

APRIL

MONTHLY REPORT / TEAM PHILING



RaonAtti



NOAH

SUMMER

REMY

KIM

RaonAtti

YMCA OF SAN PABLO CITY, INC.
9TH BATCH / TEAM PHILING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Meatless Monday) Change Raonatti's Accommodation	2 Railroad outreach Summer program meeting w/ volunteers	3 Visit Baloc Environmental beautification	4 Meeting w/ Richard Environmental Beautification	5 JEK'S Photoshot Environmental Beautification	6 King's graduation at Canosa College Housewarming Party
7 Sir Chris' birthday Reflection day	8 (Meatless Monday) Summer program meeting w/ volunteers Environmental beautification	9 English Class w/ Sir Chris Practice: Potalion Railroad outreach	10 Summer Program Kick-off Practice: Potalion	11 English Class w/ Sir Chris Practice: Potalion Environmental beautification	12 Summer Program Invited from cuisine of Tita Grace's birthday party	13 TAKE A REST
14 Noah's birthday Orientation & Feeding at Baloc Practice: Potalion	15 (Meatless Monday) Summer Program Kim confined at San Pablo Doctor's Hospital	16 Practice: Potalion	17 Summer Program Practice: Potalion Kim transferred to Asian Hospital at Muntinlupa city, Manila	18 Practice: Potalion	19 Summer Program Practice: Potalion	20 Jek's 18 TH & Ian's 21 st birthday party Visitor from Hong Kong(Jecky, volunteer) Kim discharged
21 Kim's farewell / Leaved	22 (Meatless Monday) Visitor from Cambodia YMCA(Hana) Summer Program Earth day campaign	23 Visit Baloc w/ Jecky, Hana Dinner w/ YMCA family	24 Summer Program Re-transferred Raonatti's accommodation	25 TAKE A REST	26 Summer Program	27 No Smoking campaign Discussion for fundraising
28 Monthly reflection Preparation for Fiesta at Batangas city	29 (Meatless Monday) Fiesta at Batangas city	30 Fiesta at Batangas city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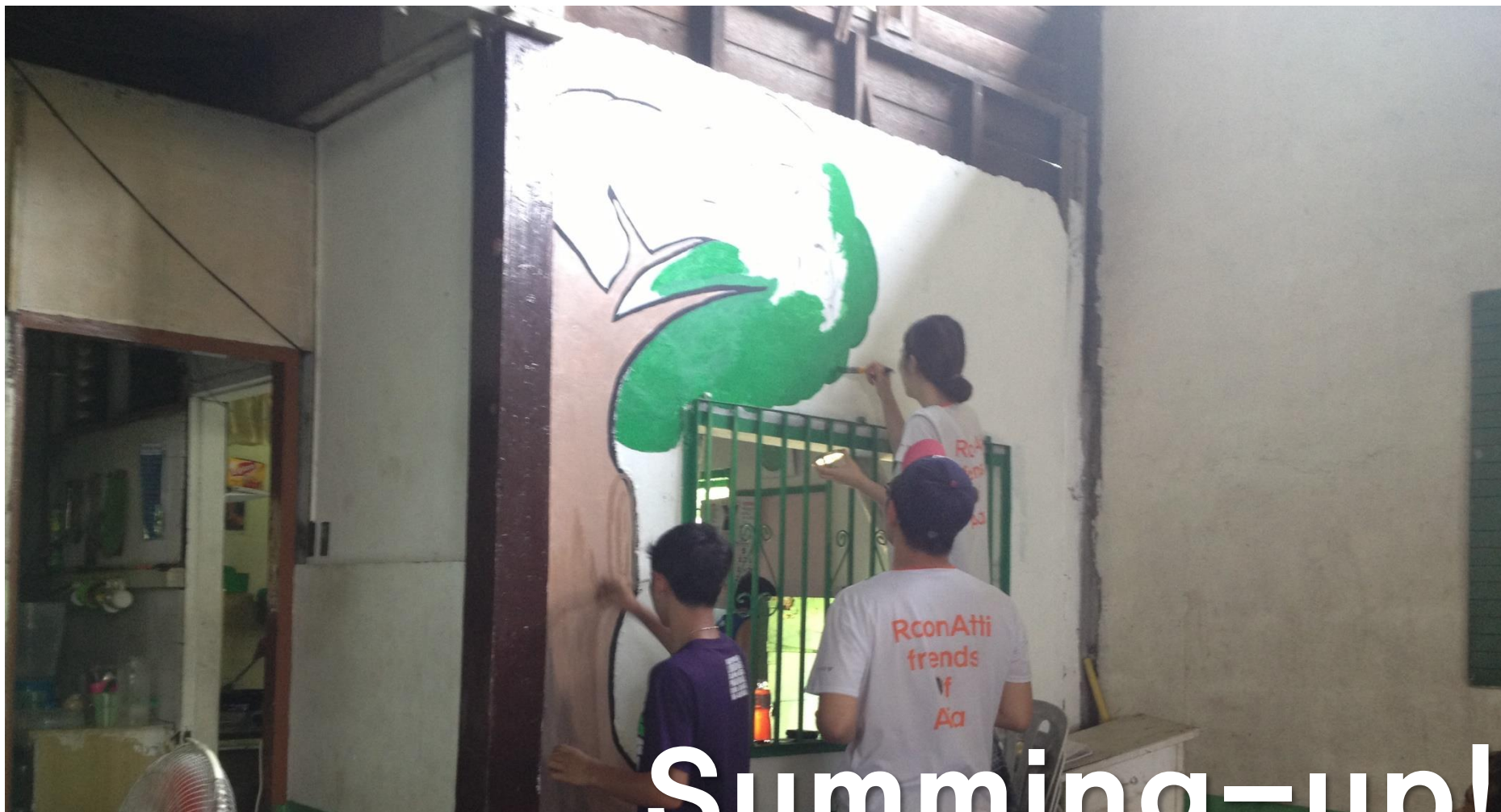
Kim!
Magkita tayo ulit kaagad!
(See you, Soon!)



4월 10일부터 한 달 간,
매주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Summer Program
“Summer Sayo,
May Advocacy Pa!”
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읽기, 쓰기 교육과 성인지 교육, 환경 교육, 지구촌 이슈 교육 등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Summing-up!



Summing-up!

YMCA 환경미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래 된 게시판을 재 정비하고,
Batang-Y의 활동비를 모금하기 위해 운영 중인 YMCA 내의 Sarisari store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미화를 진행하였습니다.

ALS Program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산 마을, Baloc에서 진행되는 ALS Program의 홍보 및 회원 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Noah 단원의 생일에 음식을 준비하여 Feeding과 오리엔테이션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ALS Program은 5월 2주차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Mommy Kristy의 딸,
JEK의 18번째 생일 행사
가 진행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여성의 18번째, 남
성의 21번째 생일을 매우 중요하
게 생각하며 크게 축하합니다.

JEK의 18번째 생일을 맞아,
YMCA에서 큰 생일 파티가 열렸
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는 지역 사회
에 YMCA가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기에 적합한 장소라는 사
실을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Summing-up!

우리의 Ungoi, 김기성 단원이 Dengiyeo로 인해 조기 귀국했습니다.

갑작스러운 Dengi 발병으로 인해 1주일 간의 입원 치료를 받은 김기성 단원(Kim)이 한국 사무국의 안전 지침에 따라 지난 21일, 필리핀항공 편으로 조기 귀국하였습니다.

현재 김기성 단원의 Dengi는 모두 회복된 상태입니다.

현지의 팀원들은 김기성 단원과 함께 하던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 현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Summing-up!



Summing-up!

본격적인 Language Class가 시작되었습니다.

YMCA의 멤버이자 Montessori School의 교장 선생님인 Sir Chris와 함께 매 주 2회, 영어와 파갈로 그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atangas city에서 열린 Fiesta에 참석했습니다.

Mommy Kirsty의 고향, Brgy. Sampaga west, Batangas City에서 열린 Fisest에 참가했습니다.

Summer와 Noah는 Beauty Contest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현지의 축제 문화는 물론이고 현지의 극심한 빈부 격차를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umming-up!





Summing-up!

Bawal Smoking!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농구장 내에서
아무렇지 않게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한 우리는 YMCA 반경 10m 내를
금연 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지의 친구들은 물론이고, World YMCA 사무총장님도 우리의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Jek's Birthday :)



Sketch :)

Jek's Birthday ::)



Sketch ::)

Jek's Birthday :)

A group of seven young people are posing for a photo at a birthday party. On the left, a man in a black tank top with 'Adventure & Travel' written on it is making a peace sign. Next to him are three women standing, one in a striped tank top and another in a white t-shirt. In the center, a man in a blue and black striped t-shirt is sitting, with a woman in a pink shirt sitting on his shoulders. To the right, another man in a dark blue t-shirt is sitting, and a woman in a white and blue t-shirt is sitting next to him. The background shows a party venue with tables covered in white and pink cloths, and a banner that reads 'DONOR AID FOR THE WORLD WE WANT!'.

Sketch :)





Jekjek's 18th birthday Party

필리핀에서는 여자 아이의 18번째 생일을 특별한 기념일이다. 마치 성인식같은?

그래서 필리핀의 모든 여자아이들의 18번째 생일엔 화려한 파티를 연다. 운 좋게도 우리는 마미의 딸인 Jek의 18번째 생일을 함께했다. 바로 짹의 생일이 4월 18일이기 때문이다. 더 특별하게도 같은 날에 짹의 오빠인 아이얀의 21번째 생일도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우리도 이 파티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터에 짹이 본인의 친구들과 '코텔리온' 이라는 춤을 추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을 했다.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우리 이 춤을 위해 2주 전부터 열심히 준비했다 :) 그리고 아이얀을 생각하며 자그마한 선물도 각자 준비했다.

당일 날 아침부터 농구장이 파티장으로 꾸며지고 수많은 손님들과 뷔페음식이 마련되고 즉석 사진기 등 화려한 축제의 장이 열렸다! 덕분에 우리도 드레스와 현지 방식의 화장법도 받게 되었다. 처음엔 필리핀식의 화장법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9명의 코텔리온 참가자들을 위해 한명 한명 열심히 머리를 만져주시고 화장을 해주신 아티스트분의 열정에 감사히 받아들였다. 또한 코텔리온 뿐 아니라 마미와 짹이 함께 Single Lady를 준비했다!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Single Lady!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파티는 밤 늦은시간까지 이어졌고 우리가 피곤에 골아떨어진 후에도 현지 분들은 밤새 노래와 춤을 즐겼다!

정말 필리핀 사람들은 즐겁게 놀고 파티를 즐길 줄 아는 것 같다. 파티는 하루로 끝났지만 파티음식은 그 주 내내 우리식탁에 이어졌다 :) 맛있는 케이크와 스파게티~!

Jek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



Story of Remy

RoomA



Remy's April.

이번 달은 참 이곳저곳 많이 방문했다. 무더운 날씨와 열악한 교통 환경 탓에 하루에 한 곳만 방문해도 우린 체력이 바닥 나곤 했다. 그래도 우린 알차게 san pablo의 이곳저곳을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우리를 소개하고 인사하고 사진 찍고 친구를 사귀고, 때로는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시작을 말없이 기다리고, 처음엔 한국과 달리 정시에 시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어렵게 다가왔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또한 이곳의 문화라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 아직도 2~3시간 동안 파갈로그로 진행되는 회의 속에 앉아있는 시간들이 참 어렵다. 알아듣지 못하겠고 지루해하는 내색을 숨겨야 하기에 어렵다.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바라던 이곳까지 와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가?'에 대한 혼란스러움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조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여러 번 이 생각에 대해 고민한 끝에 그냥 있는 감정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국에서처럼 조바심내거나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이곳에서 만큼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하고, 좋은 것만 남기려 애쓰지 않는다.

5개월이 다 지난 뒤에, 아니면 한국에 돌아가서 살다보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또 어떤 생각들로 정리가 될지 궁금하다.





Remy's April.

또한 나에게 있어서 4월이 달랐던 점이 있다면, 내가 바탕 y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랐던 것 같다. 3월엔 다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고 먼저 다가가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y식구를 제외한 필리핀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 바탕y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져있었다. 처음보다 그 친구들을 대하는 내 태도가 담담해지고 적극적으로이지 않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그 친구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거리감을 느끼는 걸까? 아니면 그 친구들이 나에게 대해주는 지나친 친절 혹은 관심이 나에게 어려운 걸까? 그 친구들이 나에게 치는 장난이 나는 어려운 걸까? 그 친구들과 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걸까? 등등의 고민들을 하며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번 달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 보다 내가 어떤 감정을 가졌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중심으로 적어보려 한다. 처음에 San Pablo YMCA를 보고 이러한 환경, 모습이 Philippines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YMCA를 벗어나 교회 사람들, SIM Mall 직원, 의사 할아버지 등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 필리핀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자동차, 좋은 옷, 에어컨, 좋은 사무실, 좋은 음식, 등등 한국과 비슷한 것들을 소유하고 사용했다. 그리고 Y식구들의 생활과 그 사람들의 생활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편리한 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돈인가? 라는 생각도 가졌다.





Remy's April.

그리고 San Pablo YMCA에 봉사자로서 우리의 존재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했다. 우린 사실 낯설고 어려운 환경과 사람들에 적응하며 YMCA에서 살아가고 있다. 단지 그거다. 봉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축제를 방문하기도 하고 간혹 영화도 보고 마사지도 받고 네일, 졸업식 참여, 캠페인, 벽화, 어린이 프로그램 등 그냥 이 집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다 따라가고 참석한다. 그런데 진짜 YMCA를 위한 일을 논의하다 보면 끝엔 어떻게 돈을 지속적으로 YMCA에 지원하게 할 것인가? 로 끝이 난다. 선배 단원들도 귀국 후에도 모임을 갖고 소정의 돈을 이곳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면 돈인가? 이곳에서 진정 필요로 하고 당장 필요한 것이 돈인가? 돈이면 Y식구들도 좀 더 편리한 생활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돈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Pure Gold’, ‘SIM Mall’ San Pablo YMCA 근방에 있는 MART이름이다. 정오부터 3시까지 체험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더위에서 우린 Pure Gold나 SIM Mall로 도피를 간다. 그곳에 가면 더위를 잊게 해주는 에어컨과 패스트푸드, 간식, 맛있는 음료 등도 판다. 가기 전에 지쳐있던 표정들이 그곳을 가면 웃음이 피고 즐거워진다. 나는 그곳에 가는 게 문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곳을 너무 자주 가지 말아야 할까? 너무 빈번하게 그곳에 가는 것을 Y식구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일인가? 의문스럽다.

‘가면 안 되는가? 왜 안 될까? 우린 왜 그곳을 좋아할까?’





Remy's April.

다음으로는 내 기준으로 이곳에서 느끼는 열악한 환경에 대해 적어보려 한다. 이곳에는 개미가 참 많다. 우리가 먹는 음식, 접시 위에도 개미가 기어 다닌다. 이곳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개미를 훌훌 털고 먹는다. 난 처음에 더럽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뭐 다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기겁을 하니 생색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은 적응이 되었다 yaho! :) 바퀴벌레, 처음에 보고 기겁했다. 엄지 손가락만한(진짜, 믿을 수 없겠지.) 바퀴벌레가 날아다닌다.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다 벗었는데 왕 바퀴벌레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바퀴벌레 죽이려 미친듯이 살충제를 뿌렸다. 그러나 밀폐된 공간에서 다량의 살충제가 내 숨을 막았고 당장 나가려니 옷을 입어야 되고 옷을 입자니 숨이 안 쉬어지고 그 날 죽는지 알았다.

쥐, 먹다 남은 나초과자를 내 바스켓 안에 넣어 놔다. 어느 날 바스켓을 정리하는데 바스켓에 구멍이 뚫려있고 나초봉지가 다 뜯어져 있었다. 기절할 것 같았다. 내 방에 쥐가 다니고, 내 물건에 까지 접근하다니... 이곳에는 혼한 일이고 음식을 공중에 매달아 놔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과자를 공중에 매달아 놔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그 봉지가 뜯어져 있었다. 아.. 정말 무서웠다.

쥐라는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그 곳에 매달아 놓은 과자를 먹었을까.

끔찍하다 진짜. 제발 먹어도 좋으니 내 침대에만 들어오지 않길.





Remy's April.

박쥐, 새벽 4시에 불을 켰다. 천장에서 거대한 날개달린 동물이 푸더덕 푸더덕 날아다녔다. 저게 뭐지? 나비는 아니고 설마 새인가? 나중에 물어 보았더니 Bat., 박쥐라고 했다!!!! 정말 당황스러웠다. 집에 박쥐라니,, 박쥐가 집에 살다니!!!! 박쥐가,, 박쥐... 모기, 파리도 많다. 밥 먹을 때면 모기와 파리가 꼬여서 파리를 먹는지 밥을 먹는지 모르기도 했다. 모기도 참 많아서 특히 정운언니가 많은 모기한테 물려 속상해 했다. 그리고 기성이 오빠가 덩기 모기로 귀국하기도 했다. 그래서 모기를 증오한다.

아 그리고 돈 관리에도 어려움을 느낀다. 한국에서는 한 달 용돈을 정해두고 내가 통제가능 한 범위 안에서 지출을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었는데, 단체 생활을 하다보니 예상치 못하게 사용하는 돈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이미 내가 한 달간 사용할 한도를 정해두었고, 단체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그 한도를 넘는 상황이 발생했다. 나는 너무 혼란스러웠다. 내가 정해놓은 계획대로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이 흐트러진 것이다. 그리고는 돈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쓰는가에 구애받지 않고 써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양식을 바꿨다.

그랬더니 더 많은 돈을 쓰고 싶고 지나치게 소비하게 되기도 했다. Oh my God, 여전히 참 어렵다.

나도 적다보니 새삼 내가 3월의 생각과 4월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신기하다.

3월에는 그 생각과 감정이 지속되리라 생각했고 지금은 또 4월의 감정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다. 사실 하루에도 여러 번 감정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변화한다. 5월에는 내 생각이 또 어떻게 변화하고 6월, 7월, 더 많은 시간이 흘러서는 어떻게 기억하고 남기게 될까, 그저 지금을 즐기려 한다. :)

Kim, Confined.



Kim, Confined.



Kim, Confined.





Kim, Confined.

4월 13일(토요일)-징조-by Summer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을 막 먹었을 때, 사무실 소파에 기성오빠와 함께 앉아 있었다. 평소 소파에 잘 눕지 않는 오빠가, "왜 이리 피곤하노" 라고 하며 소파에 누웠고, 내가, "오늘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오빠 가라테 두시간하고 바로 농구하고 그래서 그래. 얼른 씻고 집에 가서 쉬자." 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팀원들과 사무실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기성오빠는 평소답지 않게 소파에서 깊게 잠이 들었다. 약 한시간 뒤 9시 정도가 되어, 다같이 집으로 돌아왔고, 오늘은 피곤해서 생활나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기성오빠에게, 우리 모두 '더위에 지쳐 힘들었나 보네, 얼른 쉬어.' 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날 새벽,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어, 1층으로 내려 온 환철오빠가, 잠을 못자고 앓는 기성오빠를 보고 한국 감기약을 주긴 했지만, 기성오빠를 포함한 우리 모두, 더운 날에 심하게 운동을 해서 나타난 감기몸살 정도로 여기고 넘어갔다.



Kim, Confined.

4월 14일(일요일)-의심 -by Summer

전보다 조금 타이트해진 일주일 일정으로, 돌아온 일요일이 우리 모두에게 단비같은 휴식시간이 되어, 기쁜 마음으로 일요일을 맞았다. 마친 생필품도 구입해야할 때가 다가왔고, 마미도 여행 일정 문제로 SM물에 들릴 일이 있어, 더운 날씨도 피할 겸 여차저차 마미와 함께 가기로 했다. 하지만 기성오빠는, "몸살 같은건 집에서 하루 푹 쉬면 다 낫는다." 하면서 하루종일 자고싶다고 했기 때문에, 몸살 약을 챙겨준 뒤, 나머지 멤버와 마미가 함께 외출을 했다.

그런데 오후 3시 정도, 물에 다녀왔을 때에도 아파서 앓는 기성오빠를 보고는, 모두들 '이상하다, 왜 열이 계속 나지, 코감기거나 목이 부은것도 아닌데, 몸살은 열이 안나는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마미의 진지한 걱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손으로만 재어 미열 정도로 생각했던 체온을 직접 체온계로 재어봤는데, 열이 38.9도까지 올라있었다.

마미는 곧바로 환철오빠, 기성오빠와 함께, Doctor's Hospital이라는 산파블로에서 규모가 큰 개인종합병원으로 검진을 하러 갔다. 피검사를 통해서 기성오빠의 면역수치가 보통보다 조금 낮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이 때는 의사도 정상수치보다는 약간 낮지만 크게 걱정하거나 할 일은 아니기때문에, 집으로 돌아가 처방한 약을 제 시간에 잘 먹는다면 나을거라고 말했다. 다음 날 다시 한번 피검사를 하기로 한 뒤에 약을 처방받고 Y로 돌아왔고, 새로 이사 간 집으로의 이동이 기성오빠의 몸을 더 피곤하게 할 수 있고, 마미와 우리 모두가 하루 활동을 Y에서 하기때문에 오빠를 지켜보기 쉽도록, 기성오빠를 Y에서 머물게 했다.

그렇게 병원에서 다녀 온 뒤, 투약 시간이 각기 다른 세가지 약을 알람 맞춰 챙기고, 의사의 말대로 수시로 물을 마시게 하며, 팀원들과 마미가 돌아가며 기성오빠를 지켜보았다. 그날 밤에는 마미와 나 기성오빠가 안방 거실에서 다같이 자면서 새벽 알람에 맞춰 약을 먹도록 하였다.

물론 열이 높고, 면역 수치가 정상보다 떨어지게 나온 검사결과가 있었지만, 크게 아플 이유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다들 어떤 큰 걱정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특히 몸살로 여겼던 나는, 누워있는 기성오빠 옆에서 '큰 몸으로 뻘어있으니깐 보기 안 좋다. 여름감기를 걸리냐'라고 하고, 오빠도 '창피하다'라고 말하며 말장난도 치고, 크레파스로 마치 입원 환자를 위로하는 듯한 웃긴 벽보도 그리고 붙이면서 놀기도했다. 팀원들도 전보다 걱정은 많이하기 시작했지만, 사실 다들 지나가는 몸살이겠지 싶어서, 다음 날이 되면 다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보냈던 밤이었다.



Kim, Confined.

4월 15일(월요일)_이상 수치, 그리고 입원 _by Summer

새벽까지 약을 제시간에 잘 투약해서인지, 아침이 되자 열이 모두 내렸고, 기성오빠도 한결 나아졌다고 이야기했다. 그런 기성오빠를 보면서 마미와 나는 '다행이다, 그래도 역시 몸살이었나보다, 얼른 병원가서 새로운 검사결과 받고 마음 편히 돌아오자' 라는 생각을 동시에 했던 것 같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향한 병원에서 채혈을 하고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기성오빠가 화장실을 찾았고, 속이 메스껍다고 이야기했다. 마미와 나는 '밥도 잘 못먹고 빈 속에 약이랑 물이랑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럴거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빠가 계속 속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즈음에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마미와 나는 동시에 사색이 되고 말았다. 다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면역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그러니까 어제 검사 결과보다 더 낮게 떨어져있는 것이었다.

일단 걱정이 들은 마음에 마미가, 기성오빠를 응급병동 침대에 눕히고, 팀원들과 입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셨다. 의사 말로는 입원을 하기까지의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는 외국인이고 봉사자로 온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미는 앞 일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빠질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 차라리 미리 방지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동의했다.

그리고 사무국과 직접적으로 연락하기 시작했고, 주로 환철오빠와 마미가 사무국과 연락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입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입원이라니, 우리 모두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어리둥절했고, 서서히 무언가의 두려움과 걱정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Kim, Confined.

4월 15일(월요일)_이상 수치, 그리고 입원 _by Summer

Y로 돌아와 입원에 필요한 짐을 챙겨 입원 수속을 받았을 때, 3인실로 배정을 받았다. 사실 한국에서는 입원을 하게 되면 6인실이나 3인실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이 곳 필리핀에서는 같은 3인 병실이라 할지라도, 병원 시설 수준이 한국과 비교해 상당히 좋지 않았고, 우리는 외국인인데다 단체에서 파견된 특수한 상황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관리와 보다 더 나은 관리를 받기 위해, 마미는 아는 지인들을 동원하여, 이미 꽉 차 있는 1인실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 하셨다.

미래는 월요일 활동을 위해 우선 Y로 가서 일정을 하기로 하고, 염증 때문에 아직 몸이 좋지 않은 환철오빠는 집에서 쉬었다. 그리고 나와 기성오빠 제프리가 남아 3인 병실에서 마미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단원들이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다른 곳에서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기분이 이상했고, 혼란스러웠다.

3인 병실은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막은 편 환자의 가족들이 거의 10명이 넘게 와서 공간을 꽉 차지 하고 있었다. 이곳 저곳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환경도 우리나라의 약간은 노후된 시골병원 같았다. 그리고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선풍기가 두대 뿐이었다. 물론 우리가 다 보통의 컨디션이었다면, 필리핀에서의 이런 생활은 이젠 아무렇지 않았을 일인데, 아픈 오빠가 온전히 이런 불편함을 느껴야 하는 시스템에 정말로 마음이 답답했다.

사실 나는 오빠가 병원이 첫날이기도 하고, 마미가 돌아가며 병원에서 라온아더 한명, 마미 그리고 local volunteer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셨고, 나도 자발적인 마음에 병원에서 지내고 싶었었다. 하지만 3인 병동에 반나절을 있다보니, 조금 자신이 없어졌었다. 새롭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여자인 내가 오빠를 잘 간호하며 밤을 보낼 수 있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딱 이런 때에 마미가 1인 병실을 얻어 수속하고 오셨고, 우리는 쾌적한 1인 병실로 옮길 수 있었다.

생각보다 더 좋은 1인 병실 시스템을 두고, 기성오빠와 농담을 나눴는데, "한국에선 누리지도 못할 호사니까, 마음껏 누리다 가자"라고 이야기 했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시설의 쾌적함보다 먼저, 아픈 상황에서 다른 나라 병원에 입원해, 아픈 와중에 자기 상황을 영어로 소통해야 하고, 물론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지만, 아픈 때인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병동에 지내야 하는 기성오빠가 안쓰러웠어서, 조금 더 나은 1인 병동으로 옮긴 사실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물론 계속 함께 할 마미에게도 순환하며 간호할 우리들에게도 좋은 상황이었다.



Kim, Confined.

4월 15일(월요일)_이상 수치, 그리고 입원 _by Summer

< 대기판정 >

그렇게 1인 병실 수술을 마치고는 한시간 단위로 간호사들이 오빠의 상태를 체크하러 왔고, 조금 뒤 또 한번의 검사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오빠의 정확한 진단명은 '대기열' 이었다.

팀원들에게 사실을 알렸고, 우리는 모두 헛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맙소사 대.기.라.니. 예방접종도 할 수 없는 병이고, 지금까지 라온아띠 단원이 걸렸다고 들은 적도 없는 대기열이, 우리 팀에서 가장 건강한 기성오빠를 물다니. 아니, 대기열이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다. 난생 처음 대기열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해외체류자가 걸리면 안되는 위험한 3대 질병에 대기열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기의 증상으로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고열, 구토 증상, 물조차 넘기기 힘든 현상, 붉은 반점 등이 있었다. 돌이켜보니 기성오빠는 이 대기의 증상을 그대로 밟고 있는 듯 했다.

그렇지만 필리핀에서 대기는, 흔히 걸리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인식에 감기같은 열병으로 인식되어 있고, 의사의 말로도, 필리핀은 대기를 어떻게 치료해야하는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개 3-4일이면 다 낫는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안심이 되었다.

사실 필리핀에 있고, 필리핀 병원에 있는 우리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생각보다 너무나 평온했다. 기성오빠의 증상이 크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열이 나는 사람과 같은 상태였고, 대기를 대하는 모두의 태도가 너무나 평온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마미와 잭 그리고 아이안과 내가 함께 병동에서 밤을 보냈다. 병원 바닥이었지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힘이라고 해야하나, 에너지가 평소의 나보다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었다. 따로 함께 하고 있을 팀원들이 왠지 그리웠고, 보고싶었다. 팀원들끼리 더욱 애뜻해지는 느낌또한?! 물론, 몸은 조금 고단했지만!



Kim, Confined.

4월 16일(화요일)-악화-by Summer

아침을 먹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Y로 돌아왔고, 아침을 먹은 뒤 팀원들과 다같이 기성오빠의 병실에서 반나절을 보냈다. 환철오빠가 병실에 남기로 하고 미래와 나는 돌아왔다. 바쁘게 지나갔던 어제와는 달리 상태가 정리된 느낌이라 그런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렇게 Y에서 편한 마음으로 잠을 잤다.

하지만 잠을 자고 일어나니, 기성오빠가 밥은 커녕 물을 넘기는 것도 힘들어하고, 면역 수치가 자꾸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신경이 곤두섰다. 환경은 더 나아졌는데,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차도가 보이지 않아, 마음이 답답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마미는 일과 간호를 병행하며,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아들 돌보듯이 오빠 전신을 손수 닦아주기 까지 하시며,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모든 것들이 속상했다.

그렇지만 땡기는 치료하는 약이 있다거나, 딱히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과를 지켜보고 기다려야만 했다.

4월 16일(화요일)-악화-by Noah

기분이 좋지 않았다. 징조가 좋지 않았다. 기성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만 갔다. 아무 것도 먹지 못했고, 그저 끄끙 앓고만 있었다. 마미와 함께 기성이가 먹고 싶다는 토마토와 먹을 수 있을 만 한 음식을 사 왔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저, 지켜 보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답답했던 것 같다.

도중에 잠시, 잭 생일을 위한 연습 차 Y로 복귀해야만 했다. 병실에서 내려 오던 길, 응급실 앞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젊은 부부를 보았다. 단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손과 발, 머리카락까지 그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내고 있었다. 가슴이 저릿했다. 하지만 그 저릿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 속의 그 감정들이 뭉게뭉게, 짙은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쌀 것 만 같았다. 막연한 미래가, 곧 현실이 될 것 같았다. 마음이 더욱 어두워졌다.

늦은 저녁, 짐을 챙기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 부부는 여전히, 울고만 있었다. 그리고 곧, 응급실 베드의 천이 열렸고, 침대가 조용히 비워졌다. 남은 이들의 울음 소리는 문 밖을 타고 넘어와 내 마음을 밤 새 두들겼다. 병원은 다시 고요해졌다.



Kim, Confined.

이틀 동안 병원을 지킨 마미의 얼굴에선 약간의 불안감이 묻어 나왔다. 쉬기 위해 집으로 가겠다는 마미의 말 속에서, 나는 그녀가 지새울 그 밤을 느꼈다.

새벽 한 시가 넘은 시간, 의사가 들이닥쳤다. 열 다섯 시간 만에, 나는 결과를 들을 수 있었다. 편한 차림으로 나타난 그는, 우리에게 무덤덤하게 말했다. 내일도 차도가 없다면, 마닐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올 것이 왔구나, 되뇌었다.

4월 17일(수요일)-마닐라. _by Noah

한 숨도 자지 못한 표정의 마미가 병원에 도착했다. 새벽 다섯 시였다.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이미 수십 번, 수 백 번 울고 있었다. 병원을 옮기기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한국 사무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사무국의 아나 간사님과 통화가 연결되었다. 목소리를 듣고, 마미는 로비에 털썩, 주저앉았다. 마미는 늘 스스로를 강한 여자라고 말했다. 초 자연적 여성이라고도 말했다. 그런 마미가 울고 있다. 저기 의자에, 주저앉아 울고 있다.

마미가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맞다. 마미는 참 잘 운다. 간만에 걸려 온 리터니들의 목소리에 울고, 제프리의 ALS 합격 소식을 들으며 울었다. 하지만, 이렇게 힘겨운 울음, 거센 파도 앞에서 휩쓸려 가지 않으려는 몸부림 같은 울음은 처음이었다. 덜컥, 이 것이 현실이구나. 곧 더 큰 일들이 몰려오겠구나, 라는 사실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다. 그래서였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병원비 영수증을 앞에 두고서도, 언제 돌아올 지 모르는 마닐라에서의 삶을 위해 옷가지를 썩여 넣으면서도, 곧 멈출 것만 같았던 앰블런스 안에서도, 나는 덤덤했다. 그래야만 한다고 믿었다. 한 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병원. 그 곳에서 나는 한국을 느꼈다. 익숙한 분위기, 익숙한 시설. 모든 풍경이 낯익었다. 지름길을 찾아 간다고 매일같이 가로지르던 대학병원의 풍경, 피아노와 높은 천장, 유리 외벽과 에스컬레이터까지. 이제 됐구나, 되었구나. 파도처럼 몰려 오던 불안감이 스르르, 다시 흘러내려갔다.

감사하게도, 기성은 높은 등급의 병실을 일반 병실 비용만 지불하고 사용하게 되었다. 침대를 눕혀 둔 채, 말 없이 TV를 보고 있는 기성이 모습을 보며, 다시 한 번 다행이다, 이제 됐다고 되뇌었다.



Kim, Confined.

4월 17일(수요일)_마닐라 병원으로_by Summer

미래와 전날 밤 이런 저런 이야기로 잠을 뒤척였는데, 새벽 6시 정도에 마미가 방으로 들어오셨다. 기성오빠의 면역 수치가 더욱더 안 좋아져서, 급히 마닐라의 국제병원으로 옮기기로 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셨다.

마미가 남자 단원이 힘을 써야할 일이 필요하다며, 환철오빠가 함께 가기를 원하셨고, 짐을 싸서 병원으로 가 기성오빠가 11시 정도에 응급차를 타고 마닐라 국제병원으로 떠났다.

응급차를 타고 떠날 때의 기성오빠의 면역 수치는 한자리 숫자였다.

그런데 사실, 이 시기는, 마미 가족들이 두명이나 투병 중인 상태였고, 마미가 없는 YMCA의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고, 특히 미래와 나는 정말 혼란스러웠다. 게다가 토요일은 300명정도의 사람이 초대되는 잭의 18번째 생일파티가 열릴 예정이라,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겹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만 같아 버거웠다.

썸머 프로그램에 참여 할 기분도 나지 않았고, 딱히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넋을 놓고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기성오빠가 잘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병원 시설도 정말 좋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스템도 빨리 빨리 돌아가는 마닐라의 병원이니, 이제 정말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가졌다. 얼른 기성오빠가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었다. '댕기가 참 무서운 거구나, 타지에 와서 아픈 일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웠다.



Kim, Confined.

4월 18일(목요일)_마닐라 병원에서_by Noah

새로 옮긴 병원에서, 기성이는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 갔다. 물론, 여전히 면역 수치와 혈소판 수치는 하한가를 치고 있었지만, 적어도 모든 상황이 의료진에 의해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하루에 두 번,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이루어졌고, 검사 후 한 시간 내에 결과가 통보되었다. 간호사들은 30분에 한 번씩, 기성이의 상태를 체크했다. 감염내과 전문의인 담당 의사는 자상하게 기성이의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내일까지 기성이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수혈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웃으며 말했다. 마미는 그가 잘 생겼다고 웃었고, 나는 웃는 마미의 얼굴을 보며 웃었다.

병원 앞 편의점에서 늦은 아침을 먹으며, 마미와 나는 미뤄 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기성이의 귀국. 마미의 모든 관심은 한국 사무국의 결정에 있었다. 마미는 내게 말했다. 솔직히, 7:3이라고. 아마 가게 될 것 같다고.

하지만 복잡한 마음도 잠시, 나와 마미는 미뤄 두었던, 할 일들을 마주해야 했다.

마미는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온 잭의 생일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동시에 마미의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다는 사실 역시 변한 게 없었다. 처리해야만 할 수 많은 일들. 마미는 산 파블로로 돌아가야만 했다.

나는 밀려드는 병원비를 처리해야만 했다. 한국에서 급히 보내 준 병원비를 어떻게 인출해야 할 지가 가장 큰 과제였다.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돈을 보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적어도 이틀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기성이의 치료비는 내 한국 계좌로 입금되었다. 한화로 500만원이 넘는 돈.

필리핀의 ATM기는 한 번에 최대 30만원까지밖에 인출이 불가능하다. 매 번, 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것도 있어선 안 되는 문제였다. 마미와 함께 머리를 맞댄 끝에,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외국계 은행, HSBC를 이용하기로 했다. 한 번에 4만 페소를 출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말이 되기 전에 돈을 구해야만 했으니, 마음이 급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찾아간 곳은 HSBC의 전산 센터였고, 그 곳의 가드에게 안내 받은 지점은 공사 중이었다. 또 물어 물어 찾아간 곳은 ATM이 폐쇄되었고, 결국 세 시간을 걸어 은행에 도착했다.

내 모자가 맘에 든다며 인사를 건넨 청원경찰과 인사를 주고 받으며, 또 다시 한 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평안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Kim, Confined.

4월 18일(목요일)-귀국이 결정되다-by Noah

마미는 산 파블로로 돌아가는 것을 미루었다. 기성의 마지막 검사 결과가 늦게 나왔기 때문이었다. 늦은 오후가 되어야, 검사지가 병실로 도착했다. 혈소판 수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좋은 소식이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한국 사무국에서 전화가 걸려 왔다. 마미 앞에 앉아 있던 나는, 그녀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영어로 오고 가는 대화, 기성은 귀국이 결정되었으며 가능한 빠르게 돌아와야 한다는 한국 사무국과 의료진의 결정 앞에서 마미의 어깨는 털썩, 주저앉았다. 말 없이 듣고 있던 기성은 모른 척, TV를 껐다. 기성을 바꾸어 달라는 아나 간사님의 부탁, 전화기가 기성의 손으로 옮겨짐과 동시에 나는 마미를 모시고 병실 밖으로 나섰다.

아마, 한 삼십 분을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다. 그 순간의 기억은 어렴풋하다. 마미가 내 어깨를 꼭 붙잡았던 것 같다. 나는 아마, 그 옆에서 관촬을 거다, 관촬다는 말을 되뇌었던 것 같기도 하다. 병원 앞 편의점에 앉아, 우걱우걱 밥을 먹은 우리, 병원 로비에서 지친 마미를 위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랜드 피아노에 앉아 You raise me up을 반주했던 나. 그 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4월 19일(금요일)-병실을 지키다-by Noah

미루어 두었던 일을 처리하기 위해, 마미는 일찍 산 파블로로 향했다. 혼자 병실을 지켜야 했다. 사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이틀 만에 익숙해진 병원에서의 생활. 기성의 혈소판 수치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기에, 기성이 떠난다는 것보다 회복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평안했다. 그는 계속 TV를 보았고, 나는 기성이 좋아하는, 혹은 유일하게 잘 마시는 사과 주스와 흰 우유를 사기 위해 20분 거리의 슈퍼마켓을 드나들었다.

사실, 둘이 특별한 말을 나누진 않았던 것 같다. 나에게도, 기성이 에게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으리라. 필리핀 연맹의 Youth Director가 함께 밤을 지새기로 했지만 오지 않았다. 기성과 나는 오히려 다행이라며 킬킬거렸다. 특별하지만, 너무나도 일상 같던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다.



Kim, Confined.

4월 19일(금요일)-소식-by Summer

책의 생일 준비를 위해, 급하게 돌아오신 마미가 미래와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마미는 기성오빠의 상황이 이젠 정말 좋아졌고,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전달해주셨다. 정말 기뻐고, 이제야 마음에 있던 답답했던 무게감이 없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마미의 긴 두서와 표정을 통해 어느정도 결과를 예상 할 수 있었다.

사실 사무국에서 우리팀에게 전달된 기성오빠의 2차 치료를 위한 귀국 설명을 메일로 공지 받았을 때, 가면 쉽게 돌아오지 못할 거란 걸 예상했었다. 마미와도 이야기를 나누며, 2차 치료를 위해 귀국하기로 결정되었지만, 아마 돌아올 가능성이 적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처음에는 '결정이 된 사실이구나'라는 확답에 울컥했지만, 서서히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다른 일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이니까'라는 생각이 감정을 우선 정리하게 해 줬던 것 같고, 어린 애 처럼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서 달라질 일이 아님을 알고, 또 그렇게 하기엔 난 이미 23살이었다.

또 한편으로 참 신기하고 무서웠던 마음은, 그렇게 친했던 기성오빠였지만, 일단 가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남은 많은 시간을 3명이서 보낼 생각이 앞섰다. 그리고 내가 평소처럼 감정에 흐물흐물해서, 흔들리면 안된다는 강한 생각이 순간 들었다.

물론 팀원들에게 '나는 마음 정리하고 자리 잡는데, 솔직히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 수록 서서히 느껴지는 아쉬움과 그리움이 쌓이는 것 같고, 오히려 떠날 때까지의 시간들에는 담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Kim, Confined.

4월 20일(토요일)_퇴원과 파티, 마지막 밤_by Summer

오빠들은 마닐라에서 잭 생일 파티가 시작할 저녁 즈음에 돌아오기로 되어있었고, 미래와 나는 힘내서 즐겁게 즐기자라고 마음을 먹고, 생일 파티 준비를 했다.

한창 꾸미고 있을 때에 기성오빠가 왔고, 우리는 다같이 감격의 포옹을 나눴다. 오래 못 씻어서 인지 냄새가 났다. 그래도 좋았다. 반가웠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뻐다. 우리 팀원들 모두, 내일 새벽이면 떠날 거라는 걸 모두가 알았기 때문에, 시끌벅적한 파티 와중에도 즐거운 감정과 서운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함께 엮던 것 같다. 그래도 마지막 사진이라면서 단체로 한컷 흥을 내 사진도 여러 장 찍고, 차려진 음식들도 많이 먹어보려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런저런 속깊은 이야기를 나눌 새 없이, 기성오빠는 한 눈에 보기에 많이 피곤해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날은 비가 온 다음이라, 더위와 습기가 엄청 났었다. 오빠가 앉아 있기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팀원들 모두가, 종전 생각에는 마지막은 Y에 와서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길 바랬는데, 괜히 오게 한건가, 너무 미안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다.

파티가 끝난 다음, 기성오빠는 얼른 쉬러 가게 하고, 우리들 모두 너무 몸이 고단해서, 일찍 잠자리에 든 것 같다. 하지만 나를 포함해서 다들 쉽게 잠들지 못했을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Kim, Confined.

4월 21일(일요일)-귀국-by Summer

Y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마닐라로 향하는 밤에 마미와 아이안 라온아띠 팀이 함께 탔다. 좋은 곳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다. 오빠를 위한 것인지, 큰 원숭이를 테마로 한 테마파크 같은 음식점이었는데, 우리는 다들 즐겁게 식사를 하고 평소 같이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던 것 같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앞좌석에서 마미는 내내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는 모두가 마치 아무 말을 나누지 않고 조용히 향했던 것 같다. 아직 다 결정된게 아니라,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오빠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팀원들 모두가 뚜렷이 어떤 작별의 인사도 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오빠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애매했던 점도 있었다.

어쨌든 정말로 작별의 시간이 왔고, 우리 모두 평소같이 인사를 나누고, 기성오빠는 담담하게 공항으로 들어갔다. 다들 정신없는 한주에의 생활에 몸이 너무 고단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오빠가 갔다는 것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 마닐라에서 Y로 돌아오면서도 다들 오빠가 간건가, 싶은 마음을 갖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건지, 일단은 좀 쉬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하루를 정리하지 않았을까?

4월 21일(일요일)-귀국-by Noah

기성이를 보내고 온 밤, 멍하니 눈을 뜨고 침대에 누워 기성이 비행기의 궤적을 스마트폰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륙 신호가 떴고, 필리핀 상공을 벗어난다는 메시지가 떴다. 갑자기, 건잡을 수 없는 외로움과 마주했다. 때 마침 온 동민 간사님의 연락을 붙잡고, 그렇게 오지 않는 잠을 청해야만 했다. 아, 이젠 정말 기성이가 없다.





Summer's April.

4월 한달을 떠올리면 '얇은 달'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든다.

3월 한달 동안 나는 모기에게 50군데를 물려버렸고, 목감기가 찾아왔다. 처음 느껴보는 더위와 약기운에 시름시름 했었던 것 같다. 한국이었다면 나는 당장 병원에 갔었을테고, 센 약을 먹고, 그 약을 믿으면서 이틀을 푹 잤었을거다. 하지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 내 생각의 힘이던지, 남들에게 피해 끼치면 안된다는 첫 달의 긴장감 때문이었는지, 병원에 가지 않았다. 비록 엄청나게 혼자 상황이 어찌니 저찌니 하며 투덜대고 이주일이 넘게 감기가 이어지긴 했지만, 저런 모습이 다 처음이었으니까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저렇게 웃기게 지나오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나는 개운하게, 4월을 맛았는데, 내가 장난으로 한 말이 화근이 된 것 처럼,
"안산에서 내가 제일 먼저 감기 걸리고, 환철오빠, 기성오빠 차례로 아팠던 것처럼, 이제 바탕와이 애들도 차례대로 아팠고, 오빠들 차례니까 조심해." 라는 말대로 우리 팀 오빠들이 맥 없이 차례 차례 아프기 시작했다.

3월 마지막 주에 여러가지 큰 대외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로 다들 몸살 같이 아픈가보다 싶었다. 환철오빠는 목에 염증이 낫았는데, 하루 이틀이면 아물것 같던 그 염증이 일주일을 넘게 갔다. 그래서 오빠가 활동을 거의 쉬고 있었는데, 거의 아물 즈음 주말, 기성오빠가 사무실 소파에서 잠들어 일어나질 못하더니, 주말 동안 열이 펄펄 났다.

결국에는 입원을 하고 땡기열 진단을 받아버렸고, 보통의 땡기열 증상을 따르느가 싶더니 갑자기 위험한 수치가 나와, 좀 더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렇지만 며칠 뒤, 다행히 정상 수치로 회복을 하게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 하자마자 2차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돌이켜보아 하나하나 4월을 정리해보자니, 이런 얇고 얇던 필리핀 팀의 4월 중에도, 우리의 스케줄은 진행되고 있었다.

하나 하나 정리해볼 시간이 주어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잘 기억해내어 그 때의 느낌을 담아낼 수 있기를!





Summer's April.

'한달 동안 감사했어요, 한국식 저녁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전 기수의 의견에 따라, 이사를 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만의 집이 생긴다는 사실에, 다들 조금은 들뜨기도 했었던 것 같다. 집 정리를 어느정도 끝내고, 한달 동안 Y에서 지낸 것과 더불어, 적응하는데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한국식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사실 우리가 오랜만에 먹어보는 한국음식이라는 데에 너무 신나기도 했었지만, 결국 우리 식대로만 만들지 말고, 먹을 수 있게 만들자는 데에 의견을 합의하고, 조금 더 짜게 만들기도 하고, 필리핀식 다시다를 넣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메뉴는 해물 부침개와 두부부침, 카레, 굴소스볶음밥, 수박화채였다.

음식을 만드는 중간에 카레를 다 만들어 너무 들떠버려서 무거운 후라이팬을 무리하게 들어 옮기다 내가 반절이나 되는 양을 쏟아버렸다. 아차 싶었다. 조금만 들뜬 기분을 가라앉혔으면 됐을 텐데, 모두에게 미안했고 음식이 너무 아까웠다.

그런데 우리 팀이 그 순간 나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은, "괜찮아? 안 다쳤어? 안 다쳤으면 됐다. 잊어라." 라는 말이었다. 내가 카레보다 중요하게, 팀원 중의 한 일원으로 자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지금 생각해 보면 웃기지만, 감사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다.





Summer's April.

부엌에서 저녁시간 두시간 전부터 네명이 아웅다웅했지만, 처음 사용해보는 부엌이라, 손에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결국 원래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간에 저녁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다.

막상 차려놓고 보니, 우리는 너무 맛있겠다 싶었는데 Y식구들이 잘 먹어줄까라는 생각이 들어 걱정되었는데, 모든 음식을 싹싹 비워먹어주었다. 물론 '맛있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며...

처음 해본 부엌에서의 식사 준비. 가끔씩은 티타 도리스나 바탕와이 친구들이 덩고 쥘고 비교적 열악한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할 때, 괜히 서성이며 부채질을 해주었던 기억은 있지만, 온전히 한 식사 준비 시간 동안 함께 부엌에 있었던 적은 없었다.

직접 해보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 경험이었던 것 같다.

많은 양의 식사 준비의 순서와 질서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만드는 음식. 앞으로의 식사 시간을 더욱더 감사하게 된 계기였고, 비록 필리핀 음식이지만, 요리 할 때 우리를 배려할 그 마음을 생각해서 언제나 정말로 맛있게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아이같이 다짐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Summer's April.

'배움과 나눔의 시작'

배움

우리 팀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어 수업, 영어 배우기가 시작 된 주였다. Sir Chris와 많이 마주치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관계하게 된 것의 시작이기도 했다. 사실 필리핀 팀이 되어서 영어를 쓰는 나라에 간다는 사실에, 난 좋았다. 영어를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였는데, 생각보다 영어를 배울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다. 영어 발음을 확실하고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들 중에서도 상류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3월 한달을 지내오며, 확실히 영어로 내 의사를 표현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 실제로 어떤 순간 순간마다 그나마 영어가 있어서 서로의 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만으로도 큰 감사를 느낄수 있었다. 비록 그 영어 수준이 내가 기대하고 배우고 싶어하던 수준은 아닐지라도, 나는 내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 여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수업도 이와 비슷했다. 내가 원하던 학원식 영어를 배운다기보다, 에너지를 나눌 수 있게 되는 수업인 것 같다. 하지만 진심으로 이 수업이 행복한 시간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 같다. Sir Chris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나누고자 하는 에너지와 열정은 충분히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실제로 내 영어 발표 자세를 자발적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Summer's April.

나눔

AtteKate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SUMMER PROGRAM이 드디어 시작된 주이다. 프로그램 진행 전에 만난 여러 대학의 교수진들과 청년들과의 만남이 나를 설레게했고,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과는 또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나를 더욱 능동적으로 만들어 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가는 동안, 나는 어떠한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우선 프로그램 구성 부분에서, 그 전날 순간적 이벤트성으로 꾸러지는 구성이 조금 이해되지 않았다. 우리가 배운 것은 지속가능한 도움이었는데, 할 것 없는 아이들의 시간을 빌려 순간의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게 되었다.

또한 언어의 벽 앞에서 가장 크게 좌절하게 되었는데,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제한되어있었고, 아무래도 필리핀 사람들끼리의 프로그램이다보니, 자연스럽게 따갈로그어로 순간순간 소통해가는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가끔씩 진행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았다. 심지어 교육대상인 아이들은 아예 영어를 알아듣지도, 구사하지도 못하는데, 따갈로그어로 충분히 의사소통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꾸린 프로그램을 했다면 어떻게든 소통이 안되더라도 진행되었을 텐데 그런 상황도 아니라서, 힘들었다.

점점 우리를 배려해주기 위해 영어를 한번 더 써야하는 식의 상황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자연스레 그저 보조자가 된 것 같다.





Summer's April.

물론 40도가 되는 체육관에서 3시간을 온전히 보내기에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영어 소통을 그나마 원활하게 담당해주던 환철 오빠가 아파, 한 주의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기성 오빠가 입원을 하는 한주가 생겨나게 되면서, 우리는 불안한 감정에 휩쓸려 이미 흥미를 많이 잃어버린 썸머 프로그램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된 것 같다.

앞으로 썸머 프로그램의 한 주가 우리에게 남았다. 불만의 감정들을 다 설명하고 이해받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라운아터 만의 프로그램인 운동회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잘 마무리 할 수 있으면, 내마음의 답답했던 것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지!

아이들에게 나눔을 주려했던 프로그램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배울 것의 나눔을 준 것이 아닌가 싶다.





Summer's April.

'책의 18번째 생일을 함께하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

4월이 시작될 때부터 천천히 준비되어오기 시작했던 책의 18번째 생일. 필리핀에서는 여자의 18번째 생일을, 마치 우리나라의 결혼식 같이 큰 행사로 여긴다.

처음에는 이런 모든 것이 생소하여, 어쩔 때는 너무 유난스럽다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데 함께 이 과정을 겪어오며, 참의미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다.

행사 준비라고 하여, 행사팀을 불러 하룻밤 화려하게 꾸미고, 그저 참석해 축하해주는 그런 기념일이 아니었다. 손수 디자인하고, 타이핑하고, 꾸미고, 오리고, 붙인 100장의 초대장. 수익성을 위해서가 아닌 관계의 힘으로 섭외된 사람들이, 파티의 준비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관계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과 힘을 빌려 차려진 파티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Y를 또다른 행사장소로 소개하고 알리고자 하는 마미의 깊은 의미까지 !

그리고 파티 구성요소인 '코텔리온'을 위한 2주간의 파트너와의 연습 과정, 아이안의 21번째 의미있는 생일 선물 준비... 물론 더운 날씨에의 연습과, 더운 날씨에의 파티 과정들이, 언제나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식 방식과는 달랐다. 하지만 이제 처음의 우리 모습과는 다르게 그것을 수준에 못 미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다. 더이상 비교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냥 다른 것이고, 다른 소중한 의미가 담겨있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파티를 하는 순간에는, 일주일동안 기성오빠의 일로 고단했던 시간들이 충분히 힐링되었던 것 같다. 마음 한편에 오빠가 내일 출국한다는 무거움이 자리잡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순간을 함께 하고 갈 수 있어, 지금을 즐기자 라는 생각도 충분히 들었던 것 같다.





Summer's April.

'치유와 발돋움'

기성오빠가 떠났고, 잭 생일이라는 큰 행사를 지낸 뒤였기 때문에, 모두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함과 동시에 허무함을 느꼈던 주 같다.

다 같이 차분하게 휴식시간을 가지면서, 서로에게 용기를 건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렇게 3일 정도 휴식시간을 가진 뒤에, 우리는 서로 한마음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싶어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계획된 것이 '금연 캠페인'이었고, 새로운 어떤 일을 실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각자에게 에너지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나름대로 여러가지 섹션을 계획하고, 부담감없이 즐겁게 그리고 의미있게 진행하자라는 것이 모토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Y 방문자들에게 금연캠페인을 알렸던 것 같다.

완벽성있게 진행된 캠페인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발돋움이 된 중요한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동안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지 못했던 썸머 프로그램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보람있었다.





Summer's April.

'바탕가스, 행복의 기준을 바꿔주다'

마미의 고향인 바탕가스 피에스타에 가게 되었다. 피에스타에 대한 이야기는 또 따로 다루는 섹션이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감정을 남겨보려 한다. Y식구 모두와 함께 떠나는 또 다른 여행인 바탕가스 여행은, 지금까지의 여행경험으로 편만한 여행길만이 아닐 것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떠난 여행이었다. 그리고 다같이 간다는 사실에 설레여 기쁜 마음으로 나섰기 때문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두 시간정도 여러 번의 교통편을 갈아타면서, 언제나 겪어도 힘든 찜통더위도 다시 겪어보고, 성당의자 같은 의자 한 칸에 열 두명이 앉는, 엉덩이가 없어질 것 같은, 꽉 끼인 지프니 좌석에서의 고통도 다시 한번 맛보며 바탕가스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열악한 상황에 사실 조금 놀랐다. 바탕가스는 산파블로보다 훨씬 더워서 체감온도는 이미 40도를 넘겼고, 주거지 환경은 정말로 열악했다. 게다가 대가족이 머무는 곳이어서, 화장실 수준 또한 헉 소리 나는 수준이었다.

정말로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잠자리였는데, 시멘트 바닥에 오래된 침대시트 하나가 놓여져 있었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가축 우리 같았다. 어느정도 예상한 수준보다 훨씬 열악해서, 잠자리에 드는 동안 미래와 이틀이면 된다고, 이건 내 인생 역사에 남겨야 한다고 모기장을 덮고 자는 우리 모습을 사진도 찍어보며, 억지로 관상하고, 주문을 외우며 잤다.





Summer's April.

'바탕가스, 행복의 기준을 바꿔주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곳은 마미의 가족들이 평생을 살아온 곳이다.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몇 대가 살아오며, 아이를 기르고 그 가정만의 역사를 만들어오며, 마미같은 훌륭한 사람을 키워온 곳인 것이다. 우리가 신음하며 '지금만 견디자' 해 온 공간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생활 공간이자, 자신들의 보금자리인 것이었다.

물론 그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더 나은 곳을 선택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녹아있는 곳에서, 나는 왜 그렇게 온 몸을 뒤흔들며 힘들게만 보내고 온 것인지, 후회스럽다.

지금 다시 가라고 한다면 나는 물론 가고 싶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았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초대받게 된다면, 한눈에 보기에 열악한 사람들이 축제를 한다며, 한나절 음식 준비를 하고, 그 모든 음식을 나누고, 대접하고,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어하고 우리가 손님이라며 양보해준 그 안방을 대하는 내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처음엔 이들이 더 나은 삶의 수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니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조금씩 서서히 바뀌어 가는 것 같다. 행복의 기준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면, 이렇게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Fiesta
Brgy. Sampaga West. Batangas City

A man with dark hair and glasses is holding a rectangular sign in front of his chest. The sign has a white background with a repeating pattern of light blue leaves. The text 'Story of Noah' is printed on the sign in a black, sans-serif font. The man is wearing a light purple shirt and a red tie. The background is a solid green w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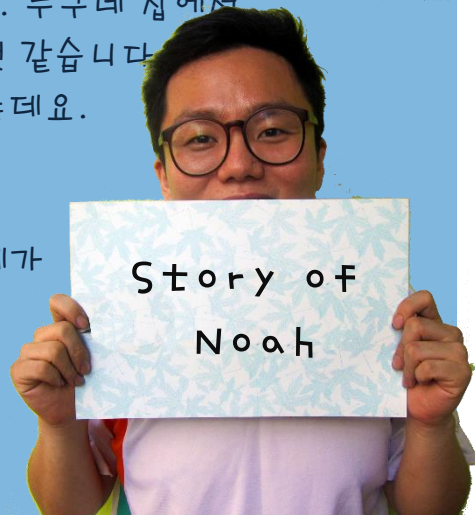
Story of Noah



Noah's April.

창 밖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겨우 오후 세시, 밖은 어스름 진 저녁처럼 컴컴합니다.
둘이 쓰던 방을 혼자 쓰게 된 덕에 들여다 놓은 책상 앞에서,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다가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 노래의 힘을 빌리기로 합니다.
기성이의 병원 입원 기록을 정리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울적해졌나 봅니다.
생각 없이, 프로그램이 추천해 주는 '비 오는 날'의 노래 목록을 눌렀습니다.
참, 인터넷의 힘은 위대합니다. 2000km가 넘게 떨어진 이 곳, 필리핀에서도 한국에 서버를 둔 음악 재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번도 듣지 못했던, 새로운 한국의 노래들을 듣게 해 줍니다.
이 곳, 필리핀에서 저는 늘 인터넷 없인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첫 곡은 '오래된 미래'의 '비'. 단순한 선택이다 싶습니다. 비가 온다고 제목이 '비'인 노래를 추천하다니.
처음 듣는 이 노래. 비 소리로 가득한 노래를 듣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번 달은 제게, 오래된 미래라는 책의 제목을, 마치 경구처럼 끊임없이 떠올리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책의 내용과는 큰 관련이 없을 겁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떠올렸다는 거지요.

처음엔 마냥 신기했습니다. 늘 행복해하는 사람들, 일이 되지 않아도, 실패해도 웃는 사람들. 누구네 집에서
잔치가 열리면, 모두 다 몰려와 함께 축하하고, 슬퍼해 주는 사람들을 보며 신기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인가 보다, 날씨가 무더워서 느긋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외할머니가 살고 계신 시골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해 보니, 날씨가 더운 걸 빼면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런 연관고리가 생기자, 한국과 필리핀 사람들의 천성은 그다지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건 흔히 이야기하는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사회와 환경, 분위기가 아닐까요?
필리핀 사람들의 행복의 비결을 고민하다 보니, 부모님에게 전해 들었던 7-80년대, 우리네
가 느끼던 행복의 시작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냥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Noah's Apr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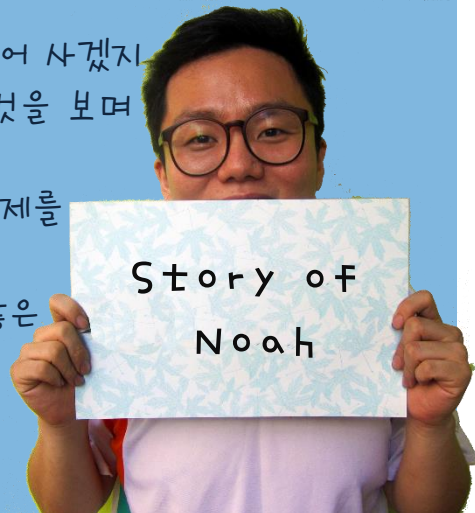
음,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야겠네요. 필리핀 사람들의 삶을 보며 의아했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없이 느긋한 사람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사람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강박적으로, 그 모습들을 인정하고 체화하려고 했습니다. 여유를 갖는 것. 일이 아닌 사람에 집중하는 것, 현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는 것 까지요. 정말 각박하게 살아 온 제게, 쉴 새 없이 살 것을 강요 받았고, 스스로의 기준으로 자신을 통제하려 했던 제게 이 시간들은 새로운 삶의 태도를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인들도 아무렇지 않게 무단횡단을 하니까,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니까, 가까운 거리도 아무렇지 않게 트라이시클을 타니까, 저렴하다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일회용품을 사서 쓰니까.

처음엔, 저 모습이 필리핀 사람들의 모습이니,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다는 배움,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는 합리적인 선택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상상이 아마 그 시작이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었던 것 역시 아마 중요한 원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틀리면 어쩌지, 잘 못 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팀원이 사 온 일회용 세제 봉지를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 사겠지. 현지인들이 잘 쓰는 거니까, 상관 없겠지 라고 생각했기에 다른 사람들이 봉투세제를 사는 것을 보며 무감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 볼까 고민도 했었거든요. 편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행동은 내 자신에겐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회용 세제를 사야만 할 이유가 없는걸 발견했어요. 큰 세제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회용품이 가져오는 환경 문제를 모르는 것도 아닌 내가, 굳이 남들이 한다고 해서, 좋지 않은 일을 합리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 일회용 세제밖에 사지 못 한다면 '아, 그렇구나' 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꾸어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Noah's April.

다 무단횡단을 한다고,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이런 공간에까지 문화의 상대성을 먼저 앞세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이 관계 맺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한 일이겠지만요.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요즈음의 풍경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Governdor(한국의 주지사)와 Mayer(시장), Konsehal(시 의원 정도?), Senedor(전국 단위) 등을 뽑는 선거의 풍경을 보면 정말로 혼란스럽습니다.

선거 세 달 전부터-이 곳에 도착할 때에도 붙어 있었으니까요-모든 공공 기관엔 현재의 주지사가 자신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상징하는 한 손가락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주지사, 아니 주 정부는 그의 이름이 부착된 이동용 차량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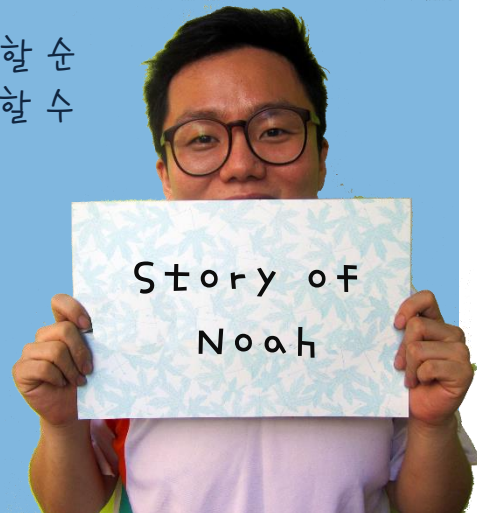
얼마 전에는 신문을 가장해서, 자신의 인기가 제일 높다는 광고지를 뿌렸지요. 대부분의 시 단위, 주 정부 단위에서 발급되는 증명서와 허가증에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최고 책임자의 이름과 사진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청에도, 매일 조깅하는 호숫가에도, 온통 선거 유세 전단과 자료들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어 Batang Y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그 주지사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배우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기준을 필리핀에 댈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에 무작정 누군가가 옳고, 그르다는 말을 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내 기준'에 대어 보았을 때, 이 건 조금 이상한 것 같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답은, 인간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지만, 지금 내 자신의 상황 속에선, 분명 지금의 선택보단 더 나은 정답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은 분명 필요하다는 것,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Noah's April.

아, 지난 4월은 애증의 달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해외에서 맞이하는 생일이었습니다만, 정작 제가 너무 아파 정신 없이 그냥, 그렇게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준 친구들이 있어 참 고맙습니다. 덤으로, 생일을 기념해 Baloc에서 Feeding을 진행한 것도 제겐 참 의미 있는 선물 같던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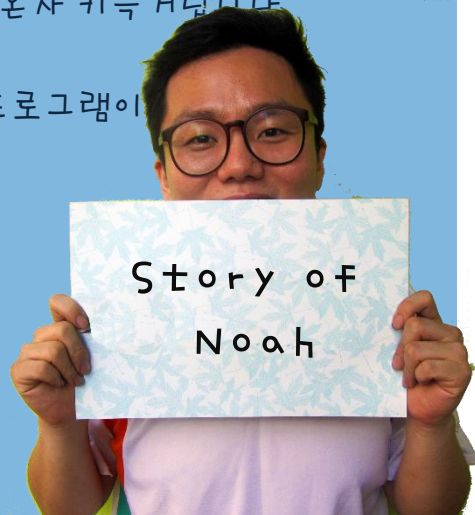
한 절반을, 고작 목젢에 난 상처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끙끙 앓다가 낫더니, 팀에서 가장 건강할 것 같았던 기성이가 훅, 가버렸네요. 개인적으로 참 아쉽습니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살고 싶었던 친구데. 간사님의 조언 따라, 어디 도망 못 갈 친구라 마음껏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도망가 버리다니, 이 건 반칙인데.

아쉽긴 합니다만,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다음을 기약하려고 합니다. 곧 만날 테니까요. 가끔씩, 무뚝뚝하고 능글능글거렸던 기성이가 생각날 때마다, 죽 쳐져 있는 제게 Sir Chris가 했던 말을 계속 되뇌고 있습니다. "Show Must Go On."

벌써 세 달도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처음엔 150일, 참 길다 싶었는데 어느덧 중간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했다고 중간평가를 받지, 싫다가도 '이 정도면 뭐 열심히 살았지' 라 생각하며 혼자 킥득거립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중간 평가를 할까요? 사실 참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절대 라온아띠라는 프로그램이 '넌 몇 명의 친구를 못 사귀었으니까, 꼴찌야!' 라 망신을 주진 않을 거라는 거죠. :) 중간평가 때도, 그 언제나처럼 이야기하고, 들으며 더 배울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조금, 신납니다. 생각보다 빨리 오신다 하길래,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이젠 모르겠어요 :) 우리 사는 거 보러 오실 테니까. 3월의 오환철과 4월의 오환철, 그리고 우리 팀을 잘 역으려 합니다. 인생을 걸쳐 두고두고 받을 평가, 굳이 이 곳에서까지 점수 맞출 필욘 없지요?

그래서, 신납니다. 글을 시작할 땐 슬펐는데, 이젠 신나요. 재밌습니다. Nakaka Tuwa!





My Dearest Ungoi Kim.

기성오빠, SUMMER야 ^^

어때, 한국에서 얼마나 잘 정리하고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다. (비록 우리 어제 연락을 했지만, 오래 못 본척하면서 감정 잡고 싶었어 ㅋㅋ) 장난인거 알지? 그렇게 오래함께 지냈는데, 편지는 처음이네, 아 어색하다.

4월 보고서를 준비하고 쓰면서, 4월 셋째주를 돌이켜보니 그 한 주는 온통 오빠 아프고 입원하고 그리고 퇴원하고 출국하는 일정이더라.

참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더니,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도, 우리 모두 마냥 감정적으로만 행동할 수 없는 나이와 위치여서인지,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지나가게 된 것 같아.

아직 잘 '해결'됐다기 보단 잘 '처리'된 것 같은 느낌이 내 개인적으로는 크지만, 내가 정말 무뎌진 건가 아무튼 23살이라, 크긴 조금 컸나봐. 우리 팀에서 유독 감정선이 흐물흐물해서, 막내인 미래보다 잘 우는 내가, '기성오빠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하면서 내 자신에 자신이 없었는데... 오빠 입원한 날부터 출국 날까지 정말 편하게 오빠 보내고, 평평 우시는 마미 옆에서 난 눈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기까지! (나 좀 누가 바늘로 찔러줬으면 좋았을 뻔 ㅋㅋ)

그런데 저 때는 내가 간절히 원해서이기도 했고, 그럴 수 있다고 믿었어서 (물론 내가 먼저 확률적으로 돌아오기 힘들거라고 오빠한테 일러주듯이 얘기했지만...) 크게 오빠가 간다고 하는 게 외롭지 않았던 것 같아. 그냥 사람이 아프니까, 빨리 나아야 하는 게 먼저니까, 보내는 아쉬움은 내 욕심이다 싶어서, 정신없이 보내게 된 것도 큰 것 같고...

며칠 전에 내가 4월 일정이었다면서 오빠한테 일정표 보내줬을 때 오빠가 물었잖아,

"야, 뭐 많이 했네... 재밌냐?"

그 때 내 대답 듣고 우리 엄청 웃었던 거 기억나지?

"오빠! 왜 질투해... 이미 알잖아 ㅋㅋㅋ 보여지는 재미랑 진짜 재미랑의 차이! ^^"

그래, 그냥 저렇게! 오빠 가고 나서, 여기는 모든 게 똑같아.

사실 오빠가 아픈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무슨 정신으로 준비하고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바빴다. 썸머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제18번째 생일도 있었잖아. 오빠 가고 난 그 다음 주에도 프로그램이 계속 있었고... 며칠 전까지 바탕가스에서 2박 3일도 보내고 와서, 바빴어. 바빠서 오빠 생각 안 날 때가 훨씬 많고, 40도 더위에 겹치는 모든 곳마다 땀 나서 내 몸 하나 움직이기 힘든 순간이 많았다 ㅋㅋ

그런데, 무서워. 저 똑같은 일상 안에 문득 오빠가 보인다는 일이 정말로 큰 일이고,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무섭다는 걸 시간이 갈수록 너무 많이 느껴.

오빠 가고 난 뒤에, 모두 힐링타임 가자라고, 좋은 곳 가서 Y가죽들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 가졌었잖아. 그 때는 물론 그 시간에 다같이 웃고 떠들면서 감사할 수 있었지만, 기성오빠가 그렇게 한번의 거나한 식사나, 하루 이들의 휴식시간으로 지워지는 잠깐의 방문자가 아니었다는 걸, 나는 요즘 '일상'에서 정말 많이 느껴.



My Dearest Ungoi Kim.

사무실 지나다니다가 발에치이는 것 있어서 보면, 오빠가 두고 간 오빠같은 거대한 곰발 크룩스 슬리퍼가 남아있어. 밥 시간 되면 'EAT MORE' 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오빠가 없으니깐, 오빠 뭉까지 더먹으라고 환철 오빠한테 먹으라한다. 가끔 가다 예의상 집어왔지만, 도저히 못 먹겠는 새반찬, 오빠가 허허 웃으면서 포크로 남들 모르게 원숭이 입으로 집어먹어주는 센스가 없어서 아쉽고. 농구 리그 끝나고 경기장 비었을 때 킹이랑 바탕 와이 애들 농구하는 거 2층에서 지켜보면, 햄버거 보이 김기성 덩실덩실 살 줄렁거리면서 안 뛰어들어서 생각나고. 가라테 애들이, 오빠 없는 우리 팀 보면서 그래도 인사해준다고 어색한 미소 지을 때 난감하고. 오빠가 두고 간, 때꼬질 꼬질이 모자(오빠 신체 일부분인 줄 알았던;) 아이안이 자기가 간직하겠다면서 챙겨갈 때 울컥하고. 제프리 농구 경기 혼자 보러가면서, 오빠가 옆에서 사투리로 '점마, 점프실력 한국 오면 자살난다' 하면서 설명해주는 거 없어서 서운하고. 마트 좋아하는 우리 세명이라서 어기적 어기적 돌아다니다 구석에 앉아서, '나는 쇼핑 이런 거, 재미없다. 놀다 와라' 하는 거 없어서 오히려 경각심 들고. 술 마실 일 있을 때 오빠가 얼굴 벌개져서 미리 분위기 잡아놓으면 획 들어가 모르는 사람들하고 쉽게 친해질 수 없어서 난 요즘 너무 어렵고. 바탕 와이 애들이랑 예전처럼 놀아도 이젠 개네랑 농담따먹기 하는 거 나 혼자고 여자라, 괜히 더 챙겨주고, 기분 묻고 이럴 때, 문지 모를 그 어색함과 불편함이 남아있어서 속상해. 가끔씩 생각 정리 안 되어서 생활 나뉘 끝나고 투덜투덜대면, 오빠가 그 큰 몸으로 작은 일기장에 일기 쓰면서, 나 얼른 보내려고 ㅋㅋ 쉽게 쉽게 말로 풀어주면서 생각 정리 해주던 거 생각나고. 그나마 가끔씩 너는 엽기적인데 귀엽기도 하다고 해주는 게 기성 오빠였는데... 무엇보다 우리 팀에서 가장 현자인스럽게, 녀석 좋고, 언제나 아무런 불평 없이, 생활하던 사람이 오빠인 걸 알아서, 내 자신과 우리 팀이 보고 배울 사람 한 명이 없어졌다는 게 아쉽고 아쉬워. 그리고 내 마음 가장 밑바탕에는, 그냥 내가 알게 된 한 사람으로서의 오빠가 그리워.

"아, 정신차리니, 왜 이리 정리하기 어렵노. 페이스북 보는 것도 힘들어진다."

오빠가 나한테 이 얘기하기 전에는, 우리 잊지 말라고, 한국에서도 필리핀 생각 많이 해야 하고, 계속 관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빠한테 카카오톡도 보내고, 페이스북 사진 올릴 때도 오빠 태그 걸어서 같이 올리고 했었는데... 저 말 듣고 처음으로 오빠 입장이 되어보려가 마히 생각해보니까, 진짜로 어렵겠더라. 오빠 가는 날, 둘이 앉아있었을 때, 티타 도리스가 안아주는 거 보고 내가 울컥해서 말 먹으면서 했던 말이 "내가 힘들까봐 오빠가 가는 게 싫은 건가 생각들 때 내가 싫은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반성했는데, 저렇게 이야기 하는 오빠 보면서 생각해보고, 아직도 내가 내 욕심 부리는 건가 싶었어. 그런데 마미랑 이야기를 하는데, 마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KIM한테 절대로 소외감 주지 말고, 비록 이젠 같은 공간에는 함께 못하지만, 언제나 통로는 열려있어야 해. KIM이 다가오기 어렵게 느껴지게 하지 말자."

오빠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내가 오히려 더 극성스럽게 연락해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이런 저런 이야기 나누고 싶어하는 것도, 내가 하는 저런 노력의 일부분이라 생각해주면서,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길 바라.

오빠가 가게 되면서, 우린 겪어보지 못할 영역의 것에 노출되고, 떠난 사람은 물론, 남은 사람들의 소중함과 일상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고, 불상사의 것(?)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매사 조심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 (환철 오빠, 오빠 대기 판정 났을 때 신속히 퓨어골드로 오프로션 구입하러 나섰고, 나랑 미래는 하루 3순환으로 오프로션 바르고 있어. 그리고 자기 전에 좀 전 것보다 진화된 파란색 대기 모기 퇴치 에프킬라 우리 방들에 홍수 날 정도로 뿌리고 있다며...)



My Dearest Ungoi Kim.

이젠, 여기 필리핀 사람들이 언제나 보여주는 것처럼, 슬픔을 슬퍼하되 너무 슬퍼하지 말고, 신이 주신 또다른 과제와 배움의 길이 열리는 거라고 마음 편히 받아들이래. 정말로 이 일이 우리에게 주고 간 것들이 많은 것도 같으니까...

오빠, 우리 필리핀 9기 팀은 이미 라온아띠 역사에 작은 전설이 되었어. 저머나먼 2기 이후에, [대기열]로 인해 4명의 팀원 중 한명이 떠난 전설의 필리핀 팀. 오빠 특히 그 장본인이니, 우리 팀 끝까지 더똥똥 뭉쳐서 마무리 잘 해가야 되는 거 알지? (내가 누누히 이야기하잖아, 사무국 몰래 돈 열심히 벌어서, 필리핀 다시 오라고...^.^ㅎㅎ)

아무래도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 다들 나만 보면 SUMMER가 여기 와서 VERY HOT 하다 그래. 하지만 내가 HOT한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하하. 갑자기 나 혼자 더더운 것 같아. 얼른 마무리 해야겠어. 오빠, 웃고 있지? SUMMER가 오빠 뭉까지 여기서 온통 사랑하다 갈게!

한국 가면 평생 볼 거지만, 여기서는 너무 그리운 기성오빠에게

P.S 쓸 수록 뭔가 상당히 연애편지 같았지만, 사실 진짜 연애편지는, 내님에게 잘 써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바!



From. Summer



Hamburger Boy에게 쓰는 편지...★(아련아련)

기성이 오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참 못났다... 한낱 모기한테
 물려서 며칠 밤을 앓더니 한국으로 가버렸구나...오빠는 5월내에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오빠의 간수치가 우주로 폭발
 하는 바람에 거기 있게 되었구나... 오빠... 사실 오빠 산미구엘라이트, 레드폴스 마실 때부터 알아봤어.. 오빠 24살이
 된 나이에 100이란 간 수치와 오빠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벨리를 봐.. 오빠 금, 주, 해, 의사 선생님도 오빠 1년?6개
 월? 간 금주해야 한다고 하셨다며, 의사 선생님 말씀 돌려듣지 말고 꼭 금주해 정말 T.T 담배도 마찬가지야, 필리핀
 가서는 그렇게 끊었다면 담배 어떻게 됐어?...○○...잔소리해서 I am so sorry but I love you.. bangbang
 사실 그 많은 모기들 중에서 하필 오빠가 멧기 모기에 물린 게 오빠 잘못이 아니지, 정말 그냥 운이 없었을 뿐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 오빠... 우리 주말마다 교회 갈 때 오빠 한 번도 교회 안 갔지?... 매 식사시간마다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 했어? 안 했어?...ㅋㅋㅋㅋ 오빠... 기도 열심히 해...★ 농담이구...하 오빠 너무나 아쉬운 마음에 편지에 ...
 (점점점)이 반이야...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해볼게
 아 오빠 정말 아쉽다.. 2달도 못 채우고 갔구나.. 그렇게 하모니카 불어대더니 난 정말 오빠가 여기 하모니카 불러
 온 줄 알았어, ㅋㅋㅋㅋ혼신의 하모니카.. 환철이 오빠의 발목 인대 부상(엄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곳곳이 꼬
 꼬마들과 배우면 가라테..(가라오케 아님) 그 큰 덩치로 고작 노란 띠까지 띠고 돌아갔구나.. 오빠가 그렇게 가라테
 가 태권도랑 비슷해서 어찌고저찌고 많이 말해줬는데..흠
 김광석 노래를 들으며 하모니카를 불던 오빠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네, 오빠 한국에서 오빠가 사랑하는 김광석 선생
 님 노래 많이 들어..ㄱ 눈물 뿜치지 말고..
 오빠 그거 알아?... 이 글씨체 옥수수체야.. 오빠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옥.수.수..
 오빠가 그렇게 옥수수를 찾아 헤맸잖아..한국에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옥수수 꼭 먹어..흠.. 너무 슬프다.. 그리고 난
 또 오빠의 명언을 잊을 수가 없어.. 짹 포토슈 날.. 오빠가 짹을 보며.. 검은 피부는 정말 말도 못하게 색소한 것 같
 다는... 오빠의 본심,
 ○○..이해해.. 그럴 수 있어..○○..... 한국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 설마 l.o.l?...



오빠 링이랑 농구도 열심히 했잖아 농구하다가 링이랑 싸우고.. 링은 개 잘 지내..
그리고 우리 Holy mountain 갔을 때,, 난 오빠가 수영 잘하는 줄 알고 오빠만 믿고
따라 들어갔다가 우리 하늘로 귀국할 뻔 했잖아 기억나?..ㅋㅋㅋㅋ
예뵤, 그렇게 아코 코 아이 캬.. 짜갈로그어도 제일 열심히 준비했는데 T.T
오빠에게 왜 이런 식련이,, 아니야 오빠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거야. 누가 땡기에 걸려보겠어,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현명하게 넘긴다면 앞으로 오빠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오빠만이 가진 특별한
경험 잘 정리하길 바래. 나라면 귀국해야 한다고 결정 났을 때,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지 부렸을거야. 오빠는
워낙 답답하고 감정을 잘 표현 않는 사람이라 떠날 때도 답답하고 잠도 어찌나 적던지, 환철이 오빠처럼 바리바리
싸오지 그랬어. 톱.(환철오빠 디스아님 환철 오빠 짱짱ㄷ)
제프리한테 오빠보고 형이 아닌 오빠라 불러라 장난 칠 때는 오빠가 또 어찌나 정색하며 싫어했다구.. 햄버거 보이
라 불리는 것은 내심 좋아한 거 다 알아.. 오빠의 흔적들이 참 많네.
오빠 남은 기간 동안 여태껏 지내온 것처럼 잘 지내고 돌아갈게.
오빠도 여태껏 지내던 것처럼 한국에서 잘 지내. 방황하지 말고..(방황해도 괜찮아ㅋㅋ)
마지막으로 2학기 개강하면 경대 북문에서 밥 한끼 사.. 오빠가 나 남자친구 데려오면 비싼 밥 사준다고 했던 거 기
억하지^^? 고마워. 지금부터 돈 모아야 할거야, 다은 씨도 같이 먹자.^_ㅎ



From. Remy



Dear Kimberto

잘 지내고 있나. 아따, 이거 더럽게 어색하다잉. 아마 이걸 읽는 너도 어색하겠지 ㅋㅋㅋ

이 페이지 읽으면서 네가 짓고 있을 표정, 말투, 그 눈빛까지 모두 떠오른다.ㅋㅋㅋㅋ 어느샌가, 적어도 이 정도는 너에 대해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큰 덩치가 사라지니, 아직도 문득문득 허전하긴 하다.

밥 먹을 때마다, 나보다 더 잘 먹고, 열심히 먹어서 얼마나 고맙고 고마웠는데... 이젠 내가 라온아띠 중에서 제일 많이 먹어... 살 뺀다는 이야기가 더욱 민망해지고 있단다.

가라테 끝나고 헉헉거리면서도 맨발로 농구장 나가서 농구하던 네 모습이 안 보이니, 더 이상은 가라테에 관심도 안 가. 네가 열심히 할 때는 그래도 나도 한번 다시 해 볼까라는 생각이라도 했었는데 ㅋㅋㅋㅋ

같이 쓰던 방에 혼자 앉아, 편지를 쓴다. 네 침대는 내가 차지했어. 어마어마하게 넓대. 처음엔 침대가 두 개인데 나 혼자 누워 있으려니 너무 어색해서 결국, 침대 하나를 들어 내 버렸어. 그 자리에 책상을 놓았지 뭐.

아이코. 이러니 저러니 말하곤 있지만 읽기 어색한 편지, 남들 보기 부끄러운 편지 쓰려니 거참 민망하다잉. 남자한테 편지 쓰는 거 취향 아닌데.

잘 이겨내고 있으리라 믿고 있다. 힘든 시간들일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오히려 연락을 더 못 하겠더라.

정운이 통해서 소식 잘 듣고 있어. 그래도 잘, 정리해 가고 있으리라 믿고 있다. 참 아쉽긴 하다, 사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친해지고 싶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아무도 알 수 없듯, 이렇게 후딱 가 버리게 될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 했었는데.



Dear Kimberto

그래도, 이게 정말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다시 만날 때면, 정말 반갑게 그 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들 나눌 수 있으리라 믿는다.

남은 세 달, 끝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돌아갈 테니 한국에서도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입국일 기억하고 있지? 공항에서 보자(!)



From. Noah



Letter from Kim, South Korea.

다들 안녕히들 지내고 계시겠지요.

이건 저와 함께했던 우리 팀원들에게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모든 우리 라온아띠 친구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입니다. 다들 정말로 잘 지내고 있겠지요? 우리 팀원들 역시 잘 지내고 있을 것이라고도 믿고 있습니다. 저 없어도 말입니다.

저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멍~합니다.

난 누군지 또 여긴 어딘지 분명 한국이 맞긴 맞는데 내가 왜 지금 한국에 있고 있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데 싶으면서도 어느새 2주...

점점 몸은 이곳에 적응해 갑니다. 적응이 아니지요 순식간에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짧았던 한달 하고도 반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가고 있기도 합니다.

여긴 밤마다 농구하며 시끄럽게 떠들고 또 몸치 하나 바꿔보겠다고 열심히 가르쳐주던 바탕와이 친구들도 없고, 언제나 저를 친구라 불러주던 아이안도 없고, 거참 귀엽던 책의 오빠소리도 없고, 아침마다 기도하며 맛있는 것들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던 마미도 없고,

하루 종일 붙어서 투덕거리던 우리 팀원들도 없어서 어느새 하나 둘씩 배웠던 기타도, 춤도, 가라데도, 망고가 어떤 맛이었는지도, 따갈로그 인사말들에 그 더위의 기억도 사라져갑니다.





Letter from Kim, South Korea.

그래도 다행인건 아직은 그 마음만은 제게 남아 여전히 그 시간들을 그리워할 만큼은 된다는 것입니다.

한달 반. 너무 짧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강렬한 기억이어서 쉽게 저를 놓아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첨에는 ‘이거 뭐고’ 하고 에이 빨리 돌아가야지 생각하고는 왔는데 이제는 ‘와.. 이거 뭐이고 진짜’ 하며 아직도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지중에 단 하나.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저를 힘들게 해서. 지금은 페이스북도 못하겠고 TV광고에 나오는 스리랑카 모습만 봐도 가슴 한 켠이 찢르르한 것이 아쉬워 채널을 돌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무언가 마음을 정리한다는 느낌에 한참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이렇게 결국은 이 아쉬움을 정리하는 글을, 또 우리 산파블로 YMCA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편지로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 마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헛헛 이거 뭘 써야 될까요? 앞으로 또 뭘 해야 될까요?

쓰기 전에는 쓸 말이 이것저것 많았는데 막상 쓰려하니깐 하나도 정리가 안됩니다.

그저 아쉽고 아쉬운 마음만 푸념처럼 늘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Letter from Kim, South Korea.

우리 산파블로 식구들 다들 잘 지내지요? 우리 팀원들도 다들 잘 지내지요? 팀원 하나가 중간에 빠져나간다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지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팀원들에게도요.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연이었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위로하지만 조금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에 또 아쉬워만 집니다. 셋이서 정말로 힘들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어떻게든 해내고야 말지요 그게 넷이 아니라 셋이어도. 결국은 잘 해내고야 말 것이라는 걸 알기에 다행이고 또 더 아쉽고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은 너무도 좋은 사람들이라 나의 이 나쁜 마음들보다도 더 잘되기를, 잘하기를,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들을 저 대신 더 많이 배워오기를 바라게 만드는 것이 정말로 우리 팀원들의 장점이자 힘인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다행입니다 우리 팀이 우리 팀이어서.

저는 이제 다음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로 많은 선택지들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제 의지가 아닌 일로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 아무래도 새로운 과제를 찾아 또 도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저 무력하게 있기에는 아직 남은 우리 라온아띠의 세 달이 제게는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또 해봐야겠습니다.

다들 건강하기를 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는 날을 기약하며, Kimberto 올림.



April, finished!

But

Show, must go on.

RaonAtti